

발표 또 연기 민주 공천 '몸살'

김홍일·박지원씨 공천 재심 요구

통합민주당의 1차 단수 공천 신청자에 대한 공천 결과 발표가 8일 이후로 또다시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6일까지 수도권 단수지역 71곳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이중 '보류' 9곳을 제외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62곳에 대해 7일 최고위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발표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유종필 대변인은 "공심위의 심사결과 보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자료 보완 후에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며 "공심위가 명단만 제출해 자료 보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공심위가 보고한 자료가 지역구와 공천자 이름만 있고 평가자료가 전혀 없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1차 발표 대상 62곳에 단수로 신청한 구 열린우리당 출신의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재공천을 받게 될 경우 모처럼 상승세를 탄 개혁공천 이미지가 희석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1차 공천 결과 발표 연기에 앞서 박상천 공동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도로 열린우리당' 소리를 듣는다"며 "호남지역 공천과 함께 발표해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단수지역은 무조건 공천해야 하는지, 아니면 쇄신공천으로 보이도록 공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단수지역이라 해도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추가 모집공고도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의 제동이 1차 공천 발표 시기를 늦추 호남과 함께

발표를 할 경우 호남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구 민주당에 대한 배려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일 의원과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손학규·박상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재심신청서를 보내 공천 재심을 요구했다.

재심신청서에서 김 의원은 "당선 이후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미 심판이 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일부 언론과, 상대방도 아닌 제가 헌신한 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너무도 서글프기만 하다"며 재심을 촉구했다.

또 박 전 실장은 "대북송금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하다가 앞선수재 혐의가 추가되었지만 1억원의 수표 추적 결과 단 한 푼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의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과 에릭 샌드롬 사무총장이 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용 2013년 광주 U대회유치위 명예위원,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 김은용 광주시 경제부시장, 에릭 샌드롬 사무총장, 김철주 광주 U대회유치위 자문위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온 FISU 위원장 "베리 굿"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



2013 하계 U대회 광주에서

"시민 열기 대단" ... 박시장, 명예시민증 수여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을 80여일 앞두고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의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과 에릭 샌드롬 사무총장이 7일 광주시를 방문, 광주의 여건과 유치심사 등에 대해 호평을 내놓아 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터뷰 2면>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유치 신청 도시 현지실사에 앞서 사전 답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킬리안 집행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박광태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환담했다. 박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FISU가 추구하는 세계 대학생들의 화합과 우정, 인류평화 정신이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정

신'과 부합돼 140만 시민의 이름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됐다"며 "시민지원단 10만여명이 '1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광주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U대회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킬리안 위원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시민이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킬리안 위원장은 수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의 유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광주와 카잔이 최종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광주가 제출한 대회 유치신청서는 지금까지 받아본 신청서 가운데 최고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킬리안 집행위원장 일행은 이어 월드컵경기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U대회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킬리안 위원장은 "광주는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며 "특히 2013 하계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고 시설 또한 훌륭하며, 시민들의 열기와 성원도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6일 밤 광주에 도착한 일행은 7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조선대에서 명예이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8일 귀국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자가용 타고
금강산 간다

17일부터 ... 일반인 예약

17일부터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주차시설 보강 작업이 끝남에 따라 17일부터 남측 관광객이 자가용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측과 협의했으며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이는 자가용으로 남측의 군사 분사분계선을 직접 통과해 금강산까지 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공천 갈등 확산

이규택·한선교 탈락, 박 전대표 "표적 공천" 반발

한나라당 공천 갈등이 또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6일 이규택, 한선교 등 경기지역 박 전 대표계 핵심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박 전 대표가 "정말 잘못된 일", "정치보복", "표적공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7일부터 공식 입장을 취소하고 장교에 돌입했다.

대선 이후 박 전 대표가 총선과 관련해 당의 결정을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표는 경기 지역 공천자 발

표가 나온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일 우려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된 공천 명단은 '고령자-박근혜계' 축출로 요약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박근혜계의 주축을 이룬 영남권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 측의 일부 인사들은 공

천 과정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정두언, 박형준 의원을 불러 '지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계에서는 이같은 반발을 무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이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칼날 공천'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관측에 '나뉘먹기식' 공천은 총선 관세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에 불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박근혜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 전 대표도 윤신의 폭이 그리 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꾸리거나 자유선진당에 합류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8(土)	9(日)
맑음 -1/13℃	맑음 2/14℃

News

- 국정원장 청문회 무산 ②
- TV 안보기 체험 현장 ③
- 여수에서도 '모세의 기적' ④
- 반값다, K-리그 리오프 ⑫

Entertainment

- 추억의 가수 속속 복귀 ⑧
- 영화제 수상작 불수있다 ⑨

Wellbeing

- 식품 집중탐구-밀 ⑬

Books

- '몽상과 매혹의 고고학' ⑭
- '궁극한 우리예절' ⑮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전 서구청장 **김종식** 후원회

우리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인맥이 튼튼하고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김종식이 걸어온 길

- 광주입교 -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합격
- 내무부(행정안전부) 근무
- 광주시 경제총상 - 환경복지국장, 서구 부구청장 역임
- 서구청장 (민선 3기)
- 조선대학교 장학생 장학금교수, 호남대학교 겸임교수

서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종식 후원회
◀ 상무2동, 화정 3-4동, 서창동, 금호 1-2동, 풍암동 ▶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방촌동 1243-10 전화 : 062) 385-6051 FAX : 062) 385-6050

후원 안내

- 단체나 개인은 불가하고 개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이 아닌 분도 후원금일 내일 후 회계장 300명까지 가능합니다.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의 후원금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비는 관공문 리본, 서구 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 농협 : 601055-56-088804
- 예금주 : 김 종 식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후원합니다.

韓銀 기준금리 5% 수준 동결

행안부, 지방 물가 잠기 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인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한은은 이달부터 플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운용목표 대신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토대로 한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작년 9월 이후 7개월째 연 5.00%에서 동결됐다.

금통위는 회의 종료 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소비증가세가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국내 경기는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 경기의 부진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음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주요 품목의 원가 상승요인을 검증한 뒤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권고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7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물가안정 방안에 따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지방물가 상시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92개 주요 물가상승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92개 품목은 2007년 대비 1.8%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으로 감자, 부추, 오이, 콩, 달걀, 밀가루, 신동, 행정수수료, 금반지, 보일러, 한방 진로비, 취업학원비, 자장면, 자동차 학원비 등이다.

행안부는 또 중앙정부의 주요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맞춰 올해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또 부처내에 '지방물가 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지역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지자체 합동점검에 함께 참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